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과 방향에 관한 연구 -사이버대학교를 중심으로-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Direction of Social Work Field Practicum - Focused on Cyber University -

Na-Rae Bae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지도한 11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을 학생, 학교, 실습기관, 제도로 나누어 살펴보고,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학생의 노력, 학교의 노력, 실습기관의 노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노력, 제도적 정비, 사회복지실습지도교수의 노력 등으로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 학교, 실습기관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육,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단순한 자격을 가진 직업인이 아니며, 철학과 가치와 이념을 지닌 전문가임을 되새겨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사회복지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현장 감각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은 사회복지사가 미래를 위한 막연한 투자의 일환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최상의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학생들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생생한 사회복지현장을 경험을 하며 이론과 실천을 통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100만 사회복지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빛나는 미래를 열기 위해 예비사회복지사인 학생, 사회복지인을 양성하는 대학교, 실천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기관, 제도를 구축하는 정부가 함께 내실 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이 될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i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tatus of the social work field practicum at a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ocial work field practicum. A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1 professors who have instructed the social work field practicum at cyber universities. The social work field practicum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professors is investigated, and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according to students, schools, practitioners,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ocial work field practicum, factors for improvement were analyzed through the efforts of students, schools, the Korean social workers' associa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ocial welfare instructo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Students, schools, and training organizations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work field practicum and must strive for systematic and consistent educ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a social worker is not a professional with simple qualifications, but an expert with a philosophy, values, and ideologies.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e social work field practicum is as follows. When constructing a social welfare curriculum, the school should have a realistic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 that can enhance the sense of the field. The student should not be qualified as a social worker only as a vague investment for the future, but should have the professional ability to serve clients as a social worker and to give professional help to clients, considering the best welfare service for human beings. Institutions should provide a place for students to integrate theory and practice in vital social welfare experiences as social workers. The Republic of Korea is now facing an age with one million social workers. In order to open the future of social welfare in Korea, we need united endeavors with government that can develop students as pre-social workers and establish universities, institutions, and their systems for a substantial social work field practicum.

Keywords : Cyber University, Faculty Field Liaison,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Qualitative Study, Social Work Field Practicum, Student Apprentices of Social Work Practice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KonYang Cyber Univ.)

Tel: +82-42-722-0081 email: victory0302@kycu.ac.kr

Received September 5, 2018

Revised October 9,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1. 서론

우리나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의 복된 삶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지향하는 실천학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구성원들의 무한한 욕구에 대한 유한한 자원의 획기적인 분배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이다. 과거 사회복지사는 빈곤과 질병 등 인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존재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복지사는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문제의 등장 에 해결 혹은 예방책을 제시하며 사람들의 생활 향상에 직간접적 관련을 갖는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된 삶을 추구한다. 사회복지사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양적, 질적 하드웨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의 전문기술인 소프트웨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전문가의 노력은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욕구의 확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부여받은 인원은 1998년 6,456명에서 2018년 830,203명으로 129배나 급증하였다[1].

1997년부터 현재까지 지침이 되어온 사회복지교육과정 이 오늘날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질 높은 사회복지교육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천현장과 학교현장 등에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18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는 사회복지사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진행하였다.

사회복지교육과정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은 사회복지학의 현장성, 실천성, 전문성을 익힐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고,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실천능력을 키우고 점검하는 교육과정이다[2]. 하지만 사회복지교육에서 현장실습교육과목의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은 사회복지 교육기관의 다양화, 신입생 모집을 강조하는 학사시스템, 실습기관수의 부족, 수퍼바이저의 낮은 전문성, 실습현장의 열악한 질적 수준 등으

로 양질의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교육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실습에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실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은 이상세계인 강의실에서 학습한 이론을 사회복지 다양한 실천현장인 현실세계의 실천을 통합하여 민감성과 유능성을 기르고 전문성과 정체성을 키운다[3].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은 사회복지전문가가 되기 위해 사회복지현장에서 경험하는 활동을 말하며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사회복지에 관한 현장경험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예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통해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보다 넓은 안목과 전문가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은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과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이며, 1일 이수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이다[4].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경험은 예비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익히고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대한 이해와 기술습득 및 사회복지사로서 올바른 정체감을 확립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질 높은 사회복지현장실습교

육이 필요하다. 또한 질 높은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제대로 익히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2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

질 높은 사회복지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학교, 기관 등에서 공통으로 제기 되고 있다[5][6][7][8].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은 핵심적인 과목이며 학교에서 이론을 중심으로 배운 교육을 실천현장에서 체험해보고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과목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은 국내외에서 필수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사회복지사협회(CSWE)에서 통상적으로 대학과정에서 400시간이상, 대학원 과정에서 900시간이상의 현장 속에서 임상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대학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실습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다. 영국은 170일간의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약 3주간 180시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9]. 한국의 경우는 120시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격대학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는 16개 대학교 중 14개교는 120시간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개교는 140시간이상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10]. 이와 같이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은 국내외 대학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를 위해 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지도한 실습지도교수 11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개별 면담을 실시 하였다. 실습지도교수의 성별은 남성이 5명, 여성이 6명이다. 평균연령은 47.8세이고, 최종학력은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현재 직급은 11명 모두 기관장이다. 기관경력은 10년 ~ 15년이 5명, 15년 이상이 6명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 지도교수로서의

경력은 2학기가 1명, 3학기가 4명, 6학기가 5명, 8학기가 1명이다.

Table 1. Socio-Demographic Background of Social Work Field Professors

	Gender	Age	Final Education	Status	Institutional Career	Career Guidance on Social Welfare Field
A	Man	46	Master of Social Work	Chief	10Years	6Semesters
B	Man	51	Master of Social Work	Chief	10Years	6Semesters
C	Woman	50	Master of Social Work	Chief	14Years	6Semesters
D	Woman	43	Master of Social Work	Chief	18Years	6Semesters
E	Woman	48	Master of Social Work	Chief	24Years	3Semesters
F	Man	55	Master of Social Work	Chief	15Years	3Semesters
G	Man	45	Master of Social Work	Chief	20Years	5Semesters
H	Man	37	Master of Social Work	Chief	11Years	2Semesters
I	Woman	45	Master of Social Work	Chief	20Years	3Semesters
J	Woman	51	Master of Social Work	Chief	11Years	6Semesters
K	Woman	55	Master of Social Work	Chief	28Years	8Semesters

3.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6월 15일 ~ 2018년 7월 15일까지이며, 2014년 1학기부터 2018학년 1학기까지 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지도한 교수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하였다.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반구조적 질문을 사용하였다. 면담과정은 연구자들의 양해를 구해 녹음하고 내용을 전사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의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4.1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실

연구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실을 학생, 학교, 실습기관, 제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4.1.1 학생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의 현실은 첫째, 실습현장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할 수 있는 기관 수가 적어서, 관심분야에서 실습을 하기 보다는 실습 가능한 기관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다양한 사회복지영역을 이해하고 실천현장을 경험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습 중에 실습 기관의 문제로 다른 기관으로 실습현장을 변경하고자 하여도 새로운 실습장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습기관의 문제를 알고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공부를 함에 있어서 학생들은 사회복지학의 철학과 이념을 겸비하여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가치를 알고 선 학업, 후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함에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회복지학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이미 국민자격증이라 불린지 오래 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미래를 위한 막연한 투자로 생각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실한 실습을 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실습기관과의 친분을 앞세워 성실한 실습을 하기 보다는 시간 때우기식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4.1.1.1 실습기관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심분야 실습보다 실습 가능한 기관을 선택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의 유형선택에 있어 본인의 관심분야보다는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실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A)

사이버대학 학생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상

실습기관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습생은 관심분야와 관계없이 실습가능한 곳에서 실습 하는 관계로 실습목적에 맞는 실습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K)

사이버 학생들은 다양한 실습현장을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선택적 폭이 매우 좁은 관계로 우리 학생들이 실습비 내고, 어깨너머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우 아쉽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일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는게 아니라 받아주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실습 계약을 맺게 되니 갑을관계 또는 종속관계로 실습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니 마음이 아픕니다(G)

실습학생들이 나이가 있고, 직업적 사정으로 실습장소를 구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져 주로 몸을 많이 사용하여야 하는 생활시설에서 실습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받아주더라도 한 시설에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학생들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일정이 불규칙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선택을 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육체적 노동으로 실습시간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간혹 종합복지관이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체계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는 학생도 있기는 하지만 드문 편입니다(C)

실습지 선정 이전에 학생들에게 실습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시켜주고 좋은 실습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다소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실습생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실습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니 자신을 받아주지만 하는 곳을 어떻게든 실습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다수여서 관심분야 실습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실습지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의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F)

4.1.1.2 실습지를 변경하고 싶어도 새로운 실습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변경이 쉽지 않음

학생들이 실습지를 어렵게 선정했기 때문에 수퍼바이저나 실습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는 기관들이 있어도 실습을 중단하게 하거나 새로운 실습장을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A)

4.1.1.3 미래를 위한 막연한 투자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실습하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위함이 아니라 퇴직 후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사를 취득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는 실습생에 비해 동기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자격증만 취득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B)

단순히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만의 목적으로 사회복지학과 과정을 선택했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의 윤리적인 책무성 강화를 위한 개념이 미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C)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수적인 도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 헌신과 열정이 부족해 보입니다(G)

현장실습 지도로 학생들을 만나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만약을 대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본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J)

실습생 중 일부는 필요에 의거 자격증 취득 및 공부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실습생은 혹시나 또는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필요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습니다(F)

4.1.1.4 실습기관과의 친분을 앞세운 사회복지현장실습 때로는 실습기관 기관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서류작업만 하고 실습을 끝내는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실습기관장의 승낙 하에 실습이 매우 허술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G)

학생의 90%정도는 실습일정을 잘 지키며 노력과 열정이 많이 있으나, 일부학생은 기관과 결탁하여 실습을

대충대충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C)

지역사회에서 학생과 기관과의 친분관계 속에서 기관은 기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자신의 편의에 맞추어 운영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인식이나 실천이 있다는 것이 제가 느끼는 현실입니다. 기관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적당히 실습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F)

4.1.2 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하는 학교의 현실은 강화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생과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 방문을 하는데 이로 인해 실습기관과 학생, 학교와의 불편한 관계가 나타났다.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학생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지도해야할 실습현장의 물리적 범위가 너무 넓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일정도 비슷한 날에 겹쳐져 있어 방문교수는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학생실습지도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충분한 실습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실습일정을 수시로 바꾸어서 방문지도교수의 일정도 변경을 자주해야 했으며, 학생들의 주말 혹은 야간실습으로 휴일에도 퇴근 후에도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 만학도 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인생경험을 강조하며 실습에 편의성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어 실습지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2.1 불시지도방문으로 실습기관, 학생, 학교와의 불편한 관계 형성

해당 대학교의 실습지도 방식이 실습기간 내에 실습지도 교수가 불시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시방문은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도교수가 마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인식을 학생과 현장에 줍니다(J)

불시에 방문함으로 생기는 기관과의 갈등이 힘들며, 부실실습이 의심되는 경우, 서로의 다툼과 갈등으로 힘이 듭니다(B)

4.1.2.2 실습지도방문지의 넓은 분포

물리적 범위가 넓고 현장실습 일정이 집중되어 있어서 만나야 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도서, 농산 지역 등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을 지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외적 요인에 의해 충분한 실습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J)

4.1.2.3 실습학생의 잦은 일정변경

학생들의 실습일정변경이 실습기간 내 수시로 이루어지니 방문지도 일정을 짜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습일정변경을 기간을 정한 뒤 그 기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실습시간과 일정이 너무나 들쭉날쭉하여 한 기관에 5명의 실습생이 있으면 5번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말, 주중, 주말주중혼합, 주간, 야간, 주간 야간혼합 등으로 편의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긴 하나 너무 시간과 일정을 혼합해서 하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는듯 하였습니다(C)

학생들의 형편에 따라 실습일정을 수시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 해서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K)

4.1.2.4 학생들의 주말실습으로 휴일도 없는 교수

사이버대학 학생들의 경우 직장인이 많아 주말에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실습지도시 휴일이 없이 지도에 매달려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A)

4.1.2.5 나이가 많은 학생 지도의 어려움

연령대가 있다보니 실습지도시 여러 가지 지시하는 부분에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도 실습지도과제 등을 소화하기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A)

실습생의 자세불량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공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오리엔테이션 미참석자만 그렇다고 하는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있으니 빠달라는 학생도 있습니다(D)

나이가 많다는 것은 불리한 점도 자랑할 점도 아님을 명심하고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실습에 임했으면 함

니다(G)

4.1.3 실습기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담당하는 기관의 현실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준비 및 인식 부족이 지적되었다. 일부 실습기관은 실습지도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낮았고, 실습에 대한 이해도 떨어졌으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자원봉사나 일손 보충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실습지도자와 서류에 명시된 지도자가 다른 기관도 있었고, 실습생을 사업수단으로 생각하고 모집을 하는 기관도 있었다.

4.1.3.1 실습기관의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준비 및 인식 부족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서 잘 지도 하려는 의지가 적습니다. 기관소개와 현황정도로 안내하고 인력에 대한 보장 차원이 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나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들이 상당합니다(E)

실습기관이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나 일손보충 정도로 생각하는 기관에서의 실습지도가 애매합니다. 현장가들 나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도에 관련해 부탁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B)

사회복지현장의 제대로 된 실습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요양보호사나 허드렛일에 대체인력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주말실습은 수퍼바이저가 근무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실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G)

현재는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습기관 중, 특히 방문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업무 위주로 과연 실습생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점과 실습기관 방문 시 실습생의 실습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인가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실습이 보입니다(H)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실습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실습기관이 사회복지현장실

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습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반면, 현장실습을 자원봉사자들이나 돌봄에 필요한 일손으로 여기는 현장도 있습니다. 실습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지를 실습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실습하는 사례도 있었고 실습현장의 업무와 무관한 같은 법인 내의 다른 기관에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J)

4.1.3.2 서류상 실습지도자와 실제 실습지도자가 다른 주말실습의 경우, 실제 실습지도자와 서류에 명시된 지도자가 다른 현상이 상당합니다. 서류에 명시된 수퍼바이저가 지도하지 않고 실습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현장도 있었습니다(I)

4.1.3.3 실습생모집을 사업 수단으로 생각하는 기관 대부분의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실습생은 매우 성실히 실습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실습기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인데, 실제로 시설장 명함에 사회복지실습기관이라고 적어놓으면서 실습생 모집을 사업처럼 진행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정말 양질의 사회복지사 배출을 위한 실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등한시 하면서 실습생 모집과 실습비 수납, 임의대로 허위실습을 진행하는 곳이 존재 하였습니다(H)

4.1.4 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대중적인 자격증이라는 인식이다.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가로서 지식 축적이 기본이라는 인식변화,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4.1.4.1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자격증 실제 사회복지 자격증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사회복지 학문의 중요한 가치가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실습도 대충 시간을 때우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F)

4.2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학생의 노력, 학교의 노력, 실습기관의 노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노력, 제도적 정비, 사회복지실습지도교수의 노력으로 살펴보았다.

4.2.1 학생의 노력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생의 노력은 첫째,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에 질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제대로 사회복지업무를 익히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4.2.1.1 학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전환

학생들이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귀찮게 시간만 채우면 되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이 자신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자질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임을 명심하고 실습에 임했다면 좋겠습니다(A)

학생들 스스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실습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J)

학생들 다수가 자신의 여건에 맞는 실습지를 찾는 것이 어렵고, 일하면서 실습하는 것이 어려운 것 등의 이유로 편하게 실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F)

사회복지현장실습생으로써의 복지적 마인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이해, 오리엔테이션에 필수 참석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단순한 120시간 채우는 활동이 아닌 복지마인드 제고에 대한 사고의 틀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D)

일부 학생들의 실습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학생의 행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문화를 흐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H)

실습은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사회복지업무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수업과정은 몰라도 실습만큼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습에 임하면 좋겠습니다(B)

4.2.2 학교의 노력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교의 노력은 첫째, 복지유사학과에서 잘못된 안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학의 근본이 되는 철학, 가치, 인권 등에 대한 강의가 사회복지학의 기초 과목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을 위해 직간접적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교육 등 사회복지학에 대한 탄탄한 이론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교육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관선정 및 주의 사항에 대한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부정 및 허위 실습을 예방하기 위해 불시 방문지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불시 방문은 기관, 학생, 교수(학교) 서로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부정, 허위실습에 대한 지도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들의 다양한 실습일정으로 실습 지도교수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방문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실습현장을 재차 방문해야 하는 일도 있어 이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이 요청된다. 여섯째, 우수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로 학생들에게 실습 가능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기관에서 실습계획서를 제출 받아 질 높은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지역별 실습지도교수와 학생들의 지역별 간담회 개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습결과보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실습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요청된다.

4.2.2.1 책임감 있는 사회복지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는 노력

학교에서 실습지도시 단일 학과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외에 다양한 학과에서 잘못된 실습지도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A)

다양한 학과에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공부를 시작할 때, 실습교육이 사회복지사 자격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F)

4.2.2.2 내실 있는 사회복지학의 이론 교육 필요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론 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강의를 학생들이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강 직후의 적절한 평가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J)

실습 전, 학교에서는 프로포절 작성방법, 기록 방법 등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E)

실습 전 사회복지 가치와 철학, 인권 관련 교과목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의 인권과 사회정의의 가치 지향의 학문이며 실천입니다. 가치와 철학이 없는 기술의 습득은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 인권 등의 교과목이 강화되어 학생들이 실습 전에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 익히고, 거기에 현장 실습에서 기술을 습득한다면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C)

4.2.2.3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교육 강화

사회복지현장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시 실습기관 선정과 주의 사항에 대하여 더 많은 강조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실습규정의 순서에 맞게 실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수 있게 말이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참으로 학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K)

학우가 대부분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실습생으로써 좀 더 강도 강한 실습생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과제 작성과 제출방법, 일지작성법 등 중요점은 기관방문지도시, 재 안내를 하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D)

4.2.2.4 실습과목의 중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학교의 실습 전 철저한 준비

실습과목의 중요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학생들이

실습에 대한 기대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과 자주 보는 것은 사이버의 특성상 쉽지 않겠지만 실습지에서 단 1회 30분 정도로 실습생을 보고 지도하는 것에 다소 한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 실습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가 잘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F)

학교의 준비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오프라인 4년제 학부생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실습기관에서 실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실습기관 지원 조차도 당락이 있는 만큼 면접부터 서류 준비가 철저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이버대학 학생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준비되고 진행되는지 잘 모를 겁니다. 실습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선정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모든 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면 학생들도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관들이 언제쯤 실습생 모집을 할 예정인지의 정보 정도는 학교 측과 공유 가능하리라 봅니다(E)

4.2.2.5 부정실습에 대한 지도방법 개선 필요

장거리 실습지도를 갈 경우 불시방문으로 인해 실습생이 기관행사 등으로 외부에 있을 경우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미리 공지하여 방문하고 불시에 기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제대로 실습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A)

현장실습 승인요청 공문발송 시, 현장실습지도교수의 기관방문에 대한 사전 미팅보와 더불어 학교 양식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D)

부정실습을 막기 위해 불시 현장지도를 하는데, 부정실습을 막는 다른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불시 현장지도 방법은 학교, 현장, 학생, 교수 간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실습의 질도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J)

4.2.2.6 실습지도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

불시 방문 시 실습생 부재로 1차 경고 후, 2차 재 방문 시 이에 대한 유류비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지도를 위해 실습지도교수가 스케줄을 새로

이 잡아 방문을 하는데 재 방문 시 휴일도 반납하고 지도 방문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학교에서는 간과하는 듯합니다(A)

4.2.2.7 우수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

실습기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습가능 기관으로 한정 하는 방안이 좋을 듯 합니다(B)

학교와 현장 간 MOU를 체결하고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J)

대학에서도 실습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실습생에게 실습기관에 대하여 잘 실습하기만을 바라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추천 할 만한 실습기관과 학교와 협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H)

4.2.2.8 실습기관에 실습계획서 제출 요청

가능하다면 세부 실습계획서를 받아서 그에 부합된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습기관은 실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F)

실습기관에 실습학생 지도계획서를 꼭 받도록 하고 계획에 맞는 지도를 하는지 실습지도교수들이 방문 때 점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K)

4.2.2.9 지역별 학생과 실습지도교수와의 별도 간담회 개최

지역별로 실습지도교수와 별도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오리엔테이션만 3-4회 특정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을 담당하는 실습지도교수와 오리엔테이션 교수가 다릅니다. 지역에서 실습을 담당하는 지도교수와 오프라인 수업이 1회 정도 이루어지게 했으면 합니다. 타 00대학교의 경우 지역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수업 불출석 1회만 있어도 실습이 인정 안 됩니다. 우리 학교도 현재 오리엔테이션 방식부터 아예 지역별 교수들이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G)

실습지도교수와 실제 실습하는 학생들과 다같이 모여서 실습진행 이전에 미팅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실습지도를 하러 현장에 나갔을 때 실습지도교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첫 대면을 해야 하는 현실이 실습생도 어리둥절하고 실습지도교수로서도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실습지도하는 학생들과 사전에 만나서 인사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등의 시간이 있다면 실제 지도했을 때의 그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H)

4.2.2.10 실습결과보고 관련 시스템 개선 필요

실습현장방문 보고서와 관련하여 교수학습시스템에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공통된 양식으로 실습방문일자과 내용, 사진 등을 온라인상으로 탑재한다면 그 능률도 올라갈 것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실습지도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전화로 실습지도하는 부분들도 그 내용과 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H)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의 개선이 된다면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D)

4.2.3 기관의 노력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기관에서는 실습 기본 매뉴얼에 근거한 실습지도가 필요하다. 기관에서의 실습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과 매뉴얼에 의한 실습이 이루어 질 경우 예비사회복지사로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익히고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관의 실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실습지도자 교육도 필요하다.

4.2.3.1 실습 기본 매뉴얼에 근거한 실습지도 필요

솔직히 일부 기관 측 실습지도가 체계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천차만별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다양한 현장의 모든 실습이 기관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과 절차 등은 기본 실습 매뉴얼(공통부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관의 특별 상황에 따른 실습 내용이 있어야겠죠. 단순히 경력만으로 실습을 지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담당하는 수퍼바이저들의 교육이 당연히 진행되고 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가 지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한국사회복지

사협회에서 실습 지도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실습 수퍼바이저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E)

실습기관 또한 성인대상으로 실시하다보니 일부의 기관에서는 시간 때우기씩 실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실습지도계획이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실습을 지도하다보니 현장실습의 효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F)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실습내용에 의거해 실습을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기획의 기회가 전혀 없이 클라이언트들의 보조 활동만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이용자들의 수발에 치중한 노인요양시설 등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기관에서는 쉽게 지도하거나 기관의 보조역할이 아니라 제대로 사회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학습과정임을 인식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D)

4.2.3.2 실습지침의 정확한 습득 필요

실습기관에서도 실습지도학생수 확인을 꼭 하기 바랍니다. 실습기관에서도 적정 실습학생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K)

실제 현장 실습지도자가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A)

4.2.4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노력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부실기관을 선별하여 실습이 가능한 적정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시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실습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 필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실습기관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협회 등록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하는 방식으로의 실습기관 인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이 필요하며, 분야별 우수실습기관 매뉴얼 보급이 요구된다.

4.2.4.1. 부실기관의 사전 필터링 필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현장 실습지도를 사명감을 가지고 실습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을 파악하여 해당기관과 연계 계약 등을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기관에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실 실습기관에서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필터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I)

4.2.4.2. 실습이 가능한 추천기관의 다양한 정보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다양하게 실습할 수 있는 실습기관의 Pool을 확보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학교와 기관의 중간자 역할을 해서 양질의 실습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엄선된 기관의 정보를 제시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해 준다면 보다 질 높은 현장실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J)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실습현장을 선택하기 이전에 다양한 현장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성향과 적성에 맞는 현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

실습현장에 대한 이해, 정보가 없어서 실습현장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전국에 실습 가능한 우수기간의 정보를 예비사회복지사들에게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공되는 정보들의 업데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

4.2.4.3. 실습에 대한 관련 지침사항의 정확성 안내 필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하여 공지한 내용과는 상이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기관과 학생 그리고 학교에 조금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필요합니다. 종종 실습기관 지도 방문 시 실습담당 사회복지사가 교육이나 회의참석 등을 사유로 기관에 부재인 경우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종종 당직근무를 하고 퇴근한 경우, 타 실습지도자가 진행하는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엄격한 제제가 필요합니다(D)

4.2.4.4. 실습기관 인증제 전면 시행 필요

실습기관의 경우에 실습지도를 하기에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한국사회복지사협회차원에서 실습기관 인증제를 전면 시행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H)

4.2.4.5. 분야별 우수실습기관 매뉴얼 보급 필요

분야별 우수 실습지도내용을 공모하여 참조하여 분야별 실습매뉴얼을 개발해 기관에 보급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A)

4.2.5 제도적 정비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로 슈퍼바이저 교육의 강화 및 현실을 반영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4.2.5.1 슈퍼바이저 교육 강화 및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슈퍼바이저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실습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습장소가 부족한 현실에서 실습기간만을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제도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B)

4.2.5.2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사회적인 제도나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도나 틀을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실습이 평가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노력은 못할 수 있습니다(E)

4.2.5.3 국민자격증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급과잉이 된 자격증의 다각적인 개선 필요

쉽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습도 쉽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분위기와 사람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I)

4.2.6 실습지도교수로서의 노력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습지도교수로서의 노력은 기관에 실습운영지침 설명과 모범기관

사례를 설명 해주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 요청을 하였다. 학생들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욕구파악 및 사회복지사로서의 태도,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하여 실습지도교수로서 기관에서 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를 하였으며, 학생에게도 실습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심어 주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4.2.6.1 기관에 실습운영지침 설명과 모범기관사례설명

실습지도를 했던 경험 등을 기관 실습지도자에게 알려주기도 하며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현장에서 설명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지침 등을 파악하여 기관 실습지도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A)

실습기관들이 자기들의 편리대로 실습학생을 지도하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장실습의 목적과 실습생의 역할과 기관의 역할을 질문하고 강조하며, 실습지도 모범기관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K)

4.2.6.2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 요청

수퍼바이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에 흠이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고유의 업무를 실습생이 실습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함께 하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B)

수퍼바이저에게 가급적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개입 방법을 실습과정에 포함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G)

사회복지 현장은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이외에 사무행정능력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일이 서툴다고 현장에서는 사무행정부분을 체험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Paper-Work 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J)

4.2.6.3 학생들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하고자 노력하며, 욕구파악 및 사회복지사로서의 태도, 활동에 대한 안내

기관방문 시 실습 수퍼바이저와 지속적인 면담과 현장실습 지도에 대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사회복지현장실

습생에게 일지작성,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가치 등 다양한 부분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D)

학생들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인사문자 및 실습활동과 관련된 제반 문의사항 안내를 문자로 자주 발송하고 있으며, 학생과 수시로 전화통화도 합니다. 기관 방문 시 기관장 및 실습지도자와 허심탄회한 면담으로 학생의 욕구와 기관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C)

학생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중요한 교육과정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실습에 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습현장의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 업무를 알고 익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활동은 기록으로 잘 남겨져야 하므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습일지 등을 통해 익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습 이후에라도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여 자신의 진로를 찾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습지도자에게는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업무를 주요 실습 내용으로 지도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물어 feed-back 하고 있습니다(J)

실습기관 방문 시 가능하면 실습생과 실습지도자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인즉 실습 시 유의사항이라든가 각종 보고서 작성요령을 설명을 해주어 알찬 실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며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함께 이야기 나누며 향후 사회복지사로 나뉠대로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F)

실습에서 하는 일에만 빠지지 말고 예비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질문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보조나 학습지도를 하는 실습생에게 실습 중인 프로그램이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역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하고 그런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실습지도가 1회 방문에 그치다 보니 한계가 많지만 학생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이를 설명하고 생각해보게 하고 있습니다(A)

실습기관의 애로사항 청취, 실습지도자와의 세부 면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I)

5. 결론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은 폭넓지 못했던 사회복지에 대한 사고를 재정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터득하여 전문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하는 핵심 과정이다. 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이론수업에서 배우고 학습한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과 가치, 기술을 사회복지현장에서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역량을 키우고 사명감을 배우며 전문가로서 성장의 기회를 가진다. 실습지도교수는 예비사회복지사가 될 학생이 다양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며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부족, 실력을 갖춘 실습지도자의 부재 및 실습지도자의 자질 부족, 학교와 기관과의 관계 형성 미흡, 실습기관에서의 비합리적, 비체계적인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11]. 이러한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하는 교수들에게 실습교육의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심층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을 학생, 학교, 실습기관, 제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째,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학생의 현실은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택의 어려움으로 관심분야 실습보다는 실습 가능한 기관을 선택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복지영역을 이해하고 경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중에 실습 기관의 문제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여도 새로운 실습장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학교의 경우, 강화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생과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 방문을 하는데 이로 인해 실습기관과 학생, 학교와의 불편한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학습을 하고 있어서 실습배정지가 광범위하다. 실습지도교수는 전국을 다니며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절대적 시간의 제약으로 학생실습지도에 질적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형편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실습일정 탓으로 실습지도교수의 일정도 변동을 해야 하며 주말 혹은 야간실습으로 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만학도 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인생경험을 강조하며 실습에 편의성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어 실습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실습기관의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현장실습을 자원봉사나 일손보충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실습생 모집을 사업처럼 진행하는 기관들도 있었다. 양질의 사회복지사 배출을 위한 실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이 아니라 실습을 기관의 수입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실습생을 모집하는 충격적인 현실도 드러났다. 넷째,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사회제도의 현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국민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법정 필수과목과 법정 선택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낮은 장벽은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학생의 노력, 학교의 노력, 실습기관의 노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노력, 제도적 정비, 사회복지실습지도교수의 노력으로 살펴 보았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생의 노력으로 첫째,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여 실습이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현장을 익히는 과목임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습기관을 선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에 질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제대로 사회복지 업무를 익히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교의 노력으로 첫째, 신입생 모집을 강조하여 많은 학과에서 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과정을 취득할 수 있게 한, 학교의 정무적 판단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학의 근본이 되는 윤리, 철학, 가치, 인권 등에 대한 강의

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을 위해 직간접적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대한 교육 등 사회복지학에 대한 탄탄한 이론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교육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관선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강화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는 부정 및 허위 실습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도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습지도교수가 실습현장에 채차 방문해야 하는 경우, 실습지도교수는 야간,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실습현장을 둘러보아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가 누적 되며 재 방문시에 적정한 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처우 개선도 요청된다. 여섯째, 우수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로 학생들에게 실습 가능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며, 기관에 실습계획서를 제출 받아 질 높은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곱째, 지역별 실습지도교수의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들과 실습지도교수와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실습 결과보고 관련 시스템 개선은 체계적인 실습지도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습기관의 노력은 실습 기본 매뉴얼에 근거한 실습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습기관에서 실습 매뉴얼에 의한 실습이 이루어 질 경우, 정리정돈이나 청소, 잡무보조, 단 순케어 등이 아니라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실천적 지식을 배우고 사회복지업무를 익히고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관에서 실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수퍼바이저 교육도 필요하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노력으로는 부실기관을 선별하여 실습이 가능한 적정기관에 대한 정보 공시를 통해 학생들이 실습기관을 선정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 필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실습기관 등록제의 전면 시행이 필요하며, 분야별 우수실습기관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로는 수퍼바이저 교육의 강화 및 현실을 반영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습지도교수로서의 노력은 기관에 실습운영지침에 대한 설명과 모

범기관 사례를 설명 해주고 체계적인 실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언과 부탁을 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실습시에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경험 할 수 있고, 내실 있는 실습을 위해 실습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심어 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이며, 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실습교육을 지도하는 교수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통하여 구체적인 제언을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하는 일부 실습교수만을 대상으로 심층탐색을 한 결과로서 표집상의 문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이버대학교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교수를 포괄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References

- [1]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ducation, Social Worker Certification Course Reorganization Course Public hearing, 2018.
- [2] Sun-Mi Hong, Myung-min Choi, "Social Work Education in Korea: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system and suggestions for quality assurance", Korean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11, pp. 1-31, 2009.
- [3] Soo-Mi Jang, "A Study of the Perception of Faculty Field Liaison on the Social Work Practicum Supervi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2, no 2, pp235-255, May 2010.
- [4]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ducation, Guidelines for Social Welfare Courses, 2016.
- [5] Ok-Kyung Yang, "Study on a Social Work Field Practicum Model Development", Korean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1, no 1, pp. 97-127, 2005.
- [6] Hea-Kyung Lee, Chan-Sub Nam, "Fifty Years' History of Social Welfare Education in Korea - 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Welfare and Univers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Korean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1, no 1, pp. 69-95, 2005.
- [7] Gi-Young Lee, Myung-min Choi,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profession", The 2006 Korean Society for Social Welfare Spring Conference, pp.74-108, 2006.
- [8] Bong-ju Lee, Heung-Gu Kang, Myung-min Choi,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rriculum and Qualification System for Social Worke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 Foundation. 2006.
- [9] Song-Hwa Jung, Je-Sun Kim, "A Study on the Reform of Social Welfare Course on the Change of Korean

Society and the Challeng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Korea Social Welfare Education Council, pp. 13-42,
2014.

- [10] Jung-Sun Park, “Status of Remote College Curriculum and Reorganization Plan” Social Worker Certification Course Reorganization Course Discussions, Korea Social Welfare Education Council, pp.3-22, 2018.
- [11] Man-Du Kim,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ractical training” 1990 Association of Korean Social Welfare College report, 1990.

배 나 래(Na-Rae Bae)

[중신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8월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문화복지, 문화교육컨텐츠, 문화산업